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전북도 농업기술원, '병해충발생정보' 발표 벼 출수기 도래 따른 도열병 예방·방제 철저

전북도농업기술원이 4일 농작물 병해충을 중심으로 제10호 병해충발생정보를 발표하고, 과원과 벼 포장에 잘 살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벼 도열병은 병원균의 침입 부위에 따라 잎과 이삭 줄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거름기가 많은 논을 중심으로 잎도열병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출수기를 앞두고 있어 이삭도열병으로 전이 될 경우 피해가 커지므로 출수 3일전 1차, 출수 7일 이내 2차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약제의 반복 사용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성분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열대저세미나병은 중국에서 발생한 성충이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비래되며, 옥수수 등 식량작물의 잎과 줄기를 갇아먹어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유

충과 성충 발견 시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고추 역병, 탄저병은 비가 잦을 때 발생되기 쉬우며, 발병 후 급속도로 번져 방제가 어려우므로 병든 전엽원은 즉시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 등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비가 오기 전후 등 복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꽃, 가지, 잎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이 발현되며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병으로 외부인 과원 출입을 되도록 자제하고 농기구소독 등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과 탄저병은 다습하고 2도 전후에서 감염이 이뤄져 전년 발생이 심했

던 농가는 예방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하여 균밀도를 줄이고 과원이 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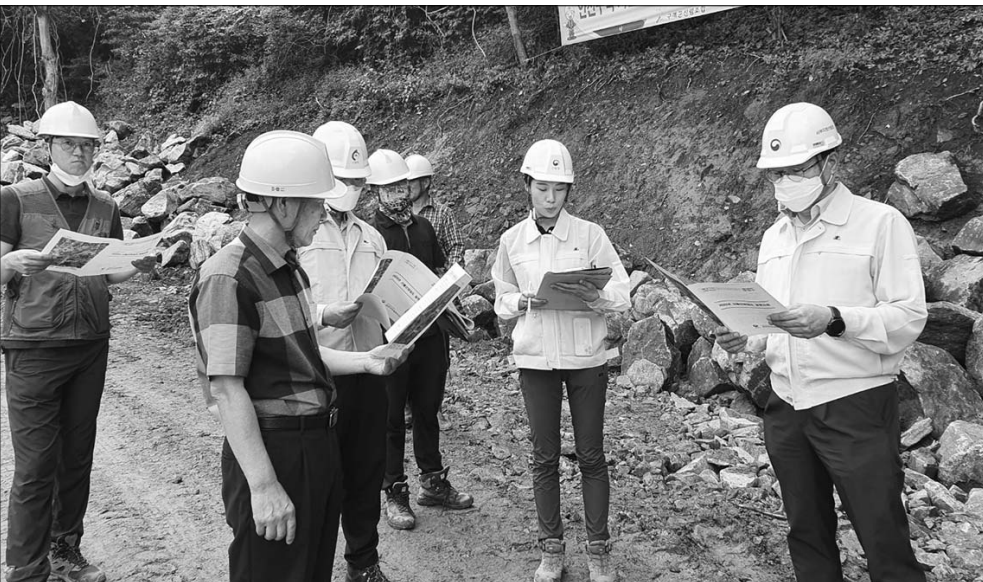
물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는 산림지에서 서식하는 성충이 인근 과원이나 밭으로 날아와 어린 가지에 흡즙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과원을 잘 살펴 성충밀도가 높아지면 주변 산림까지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기술원 백승유 지도사는 "최근 강우와 폭염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면서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벼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예방과 방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뉴시스

“사고 발생 않도록 안전관리 만전을”

서부산림청, 산불진화임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태풍 재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중인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산불진화임도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4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태풍 재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중인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산불진화임도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4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죽정리 산불진화임도 2km 포함하여 총 10km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산불진화임도는 대형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 내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도 사업지의 배수시설 상태, 절·성토부 침식·세굴 여부, 태풍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이며, 특히 근로자한테 비치 및 구급약품 구비 여부 등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하며, 구조적 대책이 필요할 경우 집중호우 전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굴삭기 운영 등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보이스피싱 ‘꼼작마’... 전북신협, 작년에만 8억8000만원 예방

지난달 덕진신협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데 앞장 앞서 5월 인후신협서 한 직원이 직감, 경찰에 신고

전북신협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4일 전북신협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건수는 지난해 기준 28건이며(기관 사칭 19건, 자녀 납치 협박 4건, 자녀 사칭 3건, 대출사기 2건), 피해 예방 금액은 약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12일 전주덕진신협 박

희서 피해를 막는데 앞장섰다.

그는 해당 고객이 통장 재발행 및 현금 인출을 요청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지속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시간을 끌며 112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2000만원을 지켜냈다.

앞서 지난 5월 26일에는 인후신협에 근무하는 오다영 지점장이 70대 조합원으로부터 예금 3000만원을 인출해달

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황실수술하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조합원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오 지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덕진경찰서는 오 지점장과 박주임에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강연수 본부장은 “연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민과 조합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신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신동진쌀’ 저렴한 가격에

전북 대표 쌀 브랜드 라이브커머스 통해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쌀 소비촉진 및 관료확대를 위해 오는 5일부터 5회에 걸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북쌀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네이버 쇼 라이브를 통해 오는 5일, 12일, 17일, 26일,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정까지 무료배송과 할인된 가격으로 전북쌀을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판매되는 신동진미는 전라북도 대표 쌀 브랜드로 다른 품종에 비해 쌀알이 1.3배 굵고 수분량과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찰지며 식감이 좋고 맛과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전북농협은 쌀 소비부진으로 판매예로를 겪고 있는 산지농협을 돕고 쌀 재고과잉으로 울거울 수확기에 산지 매입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우리의 생명창고인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고객사랑은 전복살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1·2·3 운동’(1인, 쌀2포(20kg), 3개월간 구매) 등 쌀 소비촉진을 앞장서고 있다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산물값, 추석 앞두고 더 오른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8월호 보고서

지난달 고온다습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농산물 가격이 추석을 앞둔 이달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농업관측 8월호의 ‘염근채소와 양념채소’ 보고서에 따르면 배추·무·당근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우선 배추의 8월 도매가격은 10kg에 2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가 넘는 121.8%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보다 57.8% 오른 수준이다. 여름 고령지 배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14.7% 평년보다 9.5% 줄면서 도매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지난달에도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57.4% 평년보다 87.5% 오른 10kg당 1만4160원을 기록했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달 상승 10kg당 9910원이었던 배추 가격은 중순 1만4770원, 하순 1만7330원까지 뛰었다.

관측팀은 다음 달에도 여름 고령지 배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4.4%, 7.3%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9월에도 배추 도

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 도매가격 역시 출하량이 전년보다 18.5% 감소하면서 20kg 기준 1만 9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보다 67.6% 평년보다 22.6% 오른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무 도매가격은 20kg당 1만8840원으로 전년보다 72.0% 상승한 가격대에 팔렸다. 출하량 감소는 당분간 이어지면서 9월 여름 무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당근 도매가격 역시 20kg 기준 3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평년보다 11.4%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배추 가격은 8kg당 6000원으로 전년보다는 22.8% 상승하지만 평년보다는 가격이 17.5%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건고추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건고추 도매가격은 600g당 1만3500원으로 작년보다 12.3% 평년(1만2760원)보다 5.9%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올해 건고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19.9% 평년보다 8.6% 줄어든 6만4000t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